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성경 신학적 연구와 적용  
: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

**조윤희**

(그리십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 I. 들어가면서: 이그나티우스 서신에 대한 성경 신학적 연구의 필요성
- II. 구원과 그리스도
- III. 증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 IV. 요한복음과 관련하여 성경 신학적 접근에서 발견된 설교의 세 가지 적용점
- V. 나가면서: 성경 신학적 접근의 효과

### [초록]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였다. 교회는 두 세력으로 인해 갈등과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하나는 교회를 영적 갈등 속에 빠뜨렸던 이단의 세력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로마였다. 이그나티우스는 서신을 통해 교회가 갈등과 위기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한다. 이때 그가 사용했던 도구가 성경이었다. 그는 ‘사도서’와 ‘복음서’ 그리고 ‘예언서’를 인용하며 갈등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신앙과 신학 그리고 목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의 서신은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서신은 사변적이지 않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변증서에 가까웠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성경 신학적 접근은 그의 서신이 가지는 특징을 더욱 깊이 있게 고찰하게 한다. 그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해 성경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교부였다. 특히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다. (1)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변증이다. (2)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성경 신학적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그의 신앙을 보게 되며, 진리의 파수꾼과 같은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또한 성경 신학적 접근에 따른 연구는 그의 목회적 측면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유익을 얻게 한다.

**키워드:** 그리스도, 이그나티우스, 요한복음, 성경 신학, 갈등, 구원

논문투고일 2022.07.29. / 심사완료일 2022.08.30. / 게재확정일 2022.09.07.

## 1. 들어가면서: 이그나티우스 서신에 대한 성경 신학적 연구의 필요성

1세기 말과 2세기 초를 살았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A.D. 35-108)는 안디옥의 감독이었다.<sup>1</sup>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황제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황제숭배사상에 만연해 있던 로마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에게 기다려진 것은 죽음이었다. 이상숭배를 배격하며 황제숭배를 거부했던 당시의 교회는 로마정부로부터 가해오는 박해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sup>2</sup> 그리고 이단(異端, Heresy)과 교리적 갈등을 빚는 이증고에 사로잡힌다. 순교 현장을 향하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문제 앞에 일곱 편의 서신을 기록한다. 그는 서신을 통해 교회로 하여금 고난의 위기와 교리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지도한다. 이때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며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해결점을 제시한다.

복음서와 사도서에 능했던 이그나티우스는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교부였다.<sup>3</sup> 위기와 갈등 가운데 놓인 교회를 향해 「에베소 인들에게」, 「ماغ네시아 인들에게」, 「트랄레스 인들에게」, 「로마 인들에게」,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서머나 인들에게」, 「폴리갑에게」 일곱 서신을

1 H. R.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왜관: 분도출판사, 2015), 120; 교회사와 함께 교부학자인 H. R. 드롭너는 이그나티우스의 신변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로, 비잔틴의 성인전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는 마태복음 18장 2절에 등장하는 ‘천국에 관한 비유’와 관련된 ‘한 아이’였다고 추측한다. 두 번째로 히어로 니무스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는 요한의 제자였다. 그러나 그는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였다.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53.

2 Jaroslav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27-28; Karl Suso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181-183; Louis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1991), 28.

3 Eusebius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3:36, 109; Adalbert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9, 16; Henri de Lubac,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광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화성시: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116;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33;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120.

보낼 때였다. 그는 바울과 베드로의 양식을 사용하여 서신을 쓰게 된다. 이때 요한복음과 관련된 성경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다. 특히 요한복음에 대한 인용은 이단과 교리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내용이 전개된다. 첫 번째는 구원론과 관련된다. 두 번째는 기독교론이다. 요한복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론과 기독교론을 증거했던 것처럼 단어와 문장의 직·간접적인 인용을 통해 요한복음의 특성을 살려 서신을 전개해나간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려 대속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부를 비취내는 중보적 역할의 그리스도를 변증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비취낼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유는 그의 서신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에비온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과 인성을 거부하는 이단들(영지주의자들) 사이에 놓여진 교리적 갈등에 대해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sup>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요한복음과 관련한 본문을 성경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의 서신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경 신학적 접근의 필요성은 그가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있는 의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구원에 따른 이단의 거짓된 주장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론을 중심에 두면서 기독교론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이 세운 이상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계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단어와 문장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속사도 교부 시대는 신학적으로 발달한 때가 아니었다. 신앙이 신학과 함께 통전적으로 설명되던 때였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려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성경 신학적 접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 신학적 접근을 이루며

4 Henry Bettenson,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4; Ralph Del Colle, *Christ and the Spirit: Spirit-Christology in Trinitarian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58-159;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33.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연구하게 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용어다. 요한복음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통해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과 실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연구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단어와 함께 인용된 문장이다. 요한복음의 문장을 통해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신앙적이며, 신학적이고, 목회적 요소를 동시에 담고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과 관련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성경 신학적으로 접근 하면서 이것이 설교에 어떤 유익함을 주고 있는지 (1) “성경 속에서 중심주제를 찾는 설교: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론을 중심에 두는 설교” (2) “키워드 설교: 구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설교” (3) “교리를 앞세운 언약적 설교: 구원에 관한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십자가 설교” 등 세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면서 연구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한다.

## II. 구원과 그리스도

### 1. ‘하나님의 떡( $\tau\omicron\upsilon\ \acute{\alpha}\rho\tau\omicron\upsilon\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인 그리스도

예수를 ‘떡( $\acute{\alpha}\rho\tau\omicron\varsigma$ , bread)’으로 비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에는 요한복음(10회, 요 6:32, 33, 34, 35, 38, 41, 48, 50, 51, 58)과 고린도전서(4회, 고전 11:23, 26, 27, 28)가 있다. 여기에 대해 마태복음(마 26:26)과 마가복음(막 14:22), 누가복음(눅 22:19)도 짧게나마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은 ‘떡’을 예수님 ‘자신’과 ‘몸’으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및 그와 관련된 역할을 강조한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그나티우스는 ‘복음서’와 ‘사도서’에 능한 속사도 교부였다.<sup>5</sup> 교회가 구원과 관련하여 이단과 교리 논쟁에 휘말려 있을 때였다.<sup>6</sup>

5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5:1-2, 109.

6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68),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 때였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그는 ‘복음서’와 ‘사도서’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떡’의 비유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원과 신앙에 관련된 것을 변증한다. 이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떡(*τοῦ ἄρτου τοῦ θεοῦ*)’으로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과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두 가지로 변증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떡’으로서 ‘생명의 양식(糧食)’임을 변증한다. ‘떡’은 먹는 음식이다. 양식은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원(energy source)’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5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떡(빵)이 결핍될 것입니다.(*μηδείς πλανάσθω· ἂν μὴ τις ἦ ἐντὸς τοῦ θουσιαστηρίου, ὅστερεται τοῦ ἄρτου τοῦ θεοῦ.*)”<sup>7</sup> 이 부분은 당시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이 유포하고 있었던 ‘가현설(假現說, Docetism)’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변증하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이것은 구원교리와 관련하여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한 최초의 변증문이 된다.<sup>8</sup> 이그나티우스는 여기에 대해 요한복음 6장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구원에 따른 성경 신학적 접근을 피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떡이 결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두 사람의 기도가 큰 효력을 가지고 있듯이 감독과 온 교회의 기도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분열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의 오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Ep.* 5:2)<sup>9</sup>

163.

7 Ignatius, “*ΠΡΟΣ ΕΦΕΣΙΟΥΣ ΙΓΝΑΤΙΟΥΣ*,” in *Ἐπτά Ἐπιστολαὶ Ἰγνάτιου*, 박미경 역, 『이냐시오스 일곱 편지』 (왜관: 분도출판사, 2006), 5:2, 26.

8 Ignatius, “To the Ephesians,” 5:2, 89;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140;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4 (2022), 37-38.

9 Ignatius, “To the Ephesians,” 5:2, 89.

요한복음 6장 33절은 예수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비유하며, 27절의 ‘씩을 양식’과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생명의 떡’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세상의 ‘죽을 양식’과 구별된다.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생명(ζωή)’, 즉 ‘영생(ζωή αἰώνιος)’을 강조한다. 요한은 ‘생명’을 예수와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다. 이유는 ‘생명’의 기원을 예수에게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0</sup>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며 예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생명, 빛)을 밝힌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에 대해 신성으로서 ‘초자연적 생명’의 영원성과 ‘생명의 근원’됨이 강조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Cyril of Alexandria, 376-444)는 자신의 『요한복음 주해』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된다”<sup>11</sup>며 영원한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6장 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양식’만을 사용하도록”<sup>12</sup> 한다. 이단들이 공급해주는 ‘다른 음식’은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아예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현설을 앞세운 이단들의 ‘다른 음식’은 “꿀과 포도주가 섞인 맹독”<sup>13</sup>과 같다. 이단들의 ‘씩을 양식’은 그럴듯한 논리와 미사어구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영생이라는 참된 구원에는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5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떡(ἄρτον τοῦ θεοῦ)’으로, 「에베소 인들에게」 제20장 2절에서는 ‘불멸을

10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32회, ‘영생’을 72회 사용한다. 영생은 다가올 시대를 가리키고, 유대교에서 일반적인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의 구분을 반영한다.” Thomas R. Schreiner, *The King in His Beauty*, 강대훈 역,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503, 533-534.  
11 Joel C.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정영한 역, 『교부들의 성경 주해 (신약성경 05: 요한 복음서 1-10장)』 (왜관: 분도출판사, 2014), 365, 367.

12 Ignatius, “To the Trallians,” 6:1, 100.

13 Ignatius, “To the Trallians,” 6:2, 100.

위한 약인 떡(*ἕνα ἄρτον κλωστες, ὃς ἐστὶν φάρμακον ἀθανασίας*.)에 비유하고 있다.<sup>14</sup>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원에 따른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된다. 특히 「에베소 인들에게」 제5장 2절에서는 ‘성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떡’이 결핍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sup>15</sup>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못한 이단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떡이 결핍될 것’이며, 교회를 분리시키는 ‘분열주의자’로 표현해낸다. 이단들의 가르침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썩을 양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떡’으로서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는 가치를 변증한다. ‘신앙’에 대한 변증이다. 이 또한 구원론과 연결된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3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떡’에 비유한다. 그리고 이것을 성찬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성찬을 논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단들의 교리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부활을 다룬다.<sup>16</sup> 그러나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떡’은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에 대응하는 성찬교리보다 신앙을 지켜내는 측면이 더 가미되어 논해진다.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떡’을 상기시킨다.<sup>17</sup> 전체적인 내용이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적용에서 인용되고 있다. 자신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신앙관으로 변증하고 있다.<sup>18</sup>

이 세상의 군주가 나를 유괴하고 나의 경건한 목적을 왜곡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게 될 여러분 중 누구도 그를 선통해서는 안 됩니다.

14 Ignatius, “To the Ephesians,” 20:2, 93.

15 Ignatius, “To the Ephesians,” 5:2, 89.

16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136-138.

17 Elov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365.

18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9), 251;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V*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2371.



오히려 여러분들은 내 편에 서야 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sup>19</sup>(*Rom.* 7:1)

... ..

나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나 이 세상의 진미(珍味)를 즐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떡입니다. 그리고 음료로는 그분의 피를 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원한 애찬(愛餐)입니다.<sup>20</sup>(*Rom.* 7:3)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3절에서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떡’은 2절에 있는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 어떤 열정도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ὁ ἐμὸς ἔρωσ ἐσταύρωται, καὶ οὐκ ἔστιν ἐν ἐμοὶ πῦρ φιλόϋλον· ὕδωρ δὲ ζῶν καὶ λαλοῦν ἐν ἐμοί, ἔσωθ' ἐν μοι λέγον· Δεῦρο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α.).”<sup>21</sup>와 관련된다. ‘십자가’는 죽음을 나타낸다. 이런 십자가는 회복됨과 높아짐으로 연결된다.<sup>22</sup> 그리고 “아버지께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라는 본문은 구속적인 개념에서 전개되는 말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사명이다.<sup>23</sup>

19 Ignatius, “To the Romans,” 7:1, 105.

20 Ignatius, “To the Romans,” 7:3, 105.

21 Ignatius, “ΠΡΟΣ ΡΩΜΑΙΟΥΣ ΙΓΝΑΤΙΟΥΣ,” in *Ἐπὶ Ἐπιστολαὶ Ἰγνατίου*, 7:2, 90, 92.

22 L. Michael Morales, *Exodus Old and New: A Biblical Theology of Redemption*, 윤석인 역, 『출애굽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1), 272-274.

23 안드레아스 퀴스텐베르거는 『요한신학』 제9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을 다룬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고 증언하는 본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Andreas J. Ko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전광규 역, 『요한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410; 게르할더스 보스는 『성경신학』과 『예수의 자기 계시』에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가르침은 창조에 기인하기보다 구속적인 개념에서 그 내용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Geerhardus Johannes Vos, *Biblical Theology*, 이승구 역, 『성경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21-427; Geerhardus Johannes Vos, *The Self-Disclosure of Jesus: The Modern Debate about*

구속에 대한 교리의 접근은 고대와 현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된다.<sup>24</sup> 그리스도는 아담이 되어서 죄악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과 죽으심의 대속을 이루셨다. 이그나티우스는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떡’을 증거한다. 이 본문은 제8장 3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 즉 순교와 연결된다.<sup>25</sup> 그는 자신의 순교를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의 ‘영원한 애찬’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길로 받아들인다. 비록 자신이 로마의 순교 현장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ὁ ὅτις ἐστὶν ὁ ἄρτος ὁ ἐξ οὐρανοῦ καταβάς.*)”라고 말씀한다.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은 육신을 위해 먹는 양식을 가리킨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창 3:18)의 저주와 관련된다. 따라서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죄악된 인간의 욕망은 항상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떡’으로 비유하고, 이것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비교하였듯이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7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떡’을 통해 요한복음 6장 58절을 돌아보게 한다. 자신이 맞이하는 순교는 ‘땅의 것’인 세상의 만족을 채우는 길이 아니었다. ‘하늘의 것’에 속한 영원한 애찬(愛餐)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걸음이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순교는 절망이 아니었다. ‘하늘의 것’에 속한 부활의 신호탄이었으며, 자신을

*the Messianic Consciousnes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4), 149-150.

24 Benjamin L. Gladd, *From Adam and Israel to the Church: A Biblical Theology of the People of God*, 전광규 역, 『하나님 백성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1), 129-130; John M. Frame,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김진운 역, 『성경론』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153.

25 Ignatius, “To the Romans,” 7:3, 105.

더욱 새롭게 영적으로 분발시키는 신앙의 그릇이었다.

폴 윌리엄슨(Paul R. Williamson)은 『죽음과 내세 성경신학』에서 “부활 신앙의 씨앗은 B.C. 2세기 급진적으로 생겨난 관념이 아니라 그 이전 존재했다”라고 밝히며, 부활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26</sup>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을 빌려 이런 사실을 밝히기도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우리 주님의 수난 안에서 가지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넘치는 자비에 의해 여러분은 그의 부활을 철저히 확신하고 있습니다.”<sup>27</sup>

요한복음은 신앙을 말할 때 두 가지 관점을 주목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것과 이런 주님과 신자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sup>28</sup>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떡’인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으로 승화시켜나갔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님의 떡’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론과 신앙관을 피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교회와 이에 속한 신자들에게 구원과 부활에 따른 확신을 세워주고 있었으며, 이 신앙으로 공동체와 신자들이 중심을 이루도록 견인하고 있었다.

## 2. ‘생수(살아 있는 물, ὕδωρ ζῶν)’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수’로 지칭(指稱)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등장한다. (예수님):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καὶ ἔδωκεν ἅν σοι ὕδωρ ζῶν.)”, (사마리아 여인):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πόθεν οὕν ἔχεις τὸ ὕδωρ τὸ ζῶν;)” 그리고 예수께서 명절 끝날 무리들을 향해 가르침을 주실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생수의 강’에 비유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26 Paul R. Williamson, *Death and the Afterlife: Biblical Perspectives on Ultimate Questions*, 김귀탁 역, 『죽음과 내세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118-119.

27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Text, 107.

28 Vos, *Biblical Theology*, 449-450.

나오리라(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ῥέ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요한복음 7장의 ‘생수’는 4장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생수’를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다.<sup>29</sup>

출애굽기 15장 23절~25절에서는 죽이는 ‘쓴(마라, מַר) 물’과 살리는 ‘단(마탁, מַתַּק) 물’이 대비(對比)된다. ‘물’은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sup>30</sup> 복음서와 사도서 그리고 예언서를 비롯한 구약에도 능했던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생수’로 표현한 것은 이런 성경적 배경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2절에서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 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 어떤 열정도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ὁ ἐμὸς ἔρωσ ἐσταύρωται, καὶ οὐκ ἔστιν ἐν ἐμοὶ πῦρ φιλόου λον· ὕδωρ δὲ ζῶν καὶ λαλοῦν ἐν ἐμοί, ἔσθθέν μοι λέγον· Δεῦρο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sup>31</sup>라고 말한다. 자신이 세상의 군주에게 유괴되지 않고,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은 이유를 밝힐 때, “내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생수’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생수가 있다”는 것을 통해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증거한다. 순교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티브(motive)로 여기고 있었던 그에게 순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었다.<sup>32</sup> ‘생수’는 ‘살아 있는 물(ὕδωρ ζάω, living water)’이다. ‘생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자신이 당하는 순교에 적용한다. 따라서 순교를

29 Gregory K. Beale, *(A)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김귀탁 역, 『신약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582; Schreiner, *The King in His Beauty*, 525.

30 Beale, *(A)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581.

31 Ignatius, “ΠΡΟΣ ΡΩΜΑΙΟΥΣ ΙΓΝΑΤΙΟΥΣ,” in *Ἐπτά Ἐπιστολαί Ἰγνάτιου*, 90, 92.

32 Ignatius, “To the Romans,” 8:1-3, 105-106.

앞둔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로서 ‘부활’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확신을 반증하고 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은 자신 안에 ‘부활’을 증거하는 ‘생수’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교 현장을 향하면서 서신을 기록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신의 인간적 열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힘을 얻어 「로마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나는 인간의 열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힘을 얻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절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sup>33</sup>(*Rom*, 8:3)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군사들로부터 겪는 고난 또한 순교 못지 않게 공포와 고통이 뒤따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5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열 마리의 표범들의 사슬에 매여 밤낮으로 땅과 바다를 통해 시리아에서 로마로 가면서 야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의로 나는 더 나은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sup>34</sup> 그는 군사들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sup>35</sup>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자신과 연합을 이루고 있기에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인간의 죄로 파생되는 ‘욕망’ 등 자범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신앙의 모습을 그려낸다. 키릴루스는 『요한복음 주해』에서 ‘생수’를 통해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한다. 하나는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sup>33</sup> Ignatius, “To the Romans,” 8:3, 106.

<sup>34</sup> Ignatius, “To the Romans,” 5:1, 104.

<sup>35</sup> Angelo Di Berardino, ed. *Encyclopedia of Ancient Christianity* (Illinois: IVP Academic, 2014), 1:30; Paul A. Hartog, “Imitatio Christi and Imitatio Dei: High Christology and Ignatius of antioch’s Ethics,” *Perichoresis* 17.1(2019), 3, 6-8, 16.

아무런 덕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심으로써 온갖 좋은 것들의 열매를 맺는 상태다.<sup>36</sup> ‘생수’를 회복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를 가리켜 ‘생수’라고 거론한 것은 요한복음 4장과 함께 7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생수’가 4장과 7장의 공통점이라면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2절에서 “내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라고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말씀과 더욱 가깝다. ‘생수’의 출처인 ‘배(belly, κοιλία)’에 대해 유대인들은 감각과 사상 등이 내재된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배’를 ‘육망의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생수가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은 사람의 사고와 감각, 정서, 그리고 육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결케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그나티우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플라톤 철학과 헬라사상이 유대 사회 속에서 만연하던 때였다.<sup>37</sup>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2절에서 “내 안에 생수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내면에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 어떤 열정도 타오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혔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생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 3. ‘하나님 아버지의 문(αὐτὸς ὢν θύρα τοῦ πατρὸς)’인 그리스도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9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지성소를 맡은 대제사장에 비유한다.<sup>38</sup>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문(αὐτὸς ὢν θύρα τοῦ πατρὸς)’으로 소개한다. 이와 관련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은 그리스도를 구원과 관련한 ‘문(θύρα)’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sup>36</sup>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265.

<sup>37</sup>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35; Theo Kobusch,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 19-22.

<sup>38</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9:1, 110.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방법은 없다. 반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문’을 가리켜 ‘절도’와 ‘강도’에 비유한다. 아버지와 관련하여 ‘양’을 ‘선택의 원리’에서 논하였다면, ‘문’은 ‘구원의 원리’에서 접목점을 찾고 있다.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 앞에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문’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구원의 문’이다. 몁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Theodorus of Mopsuestia, 350-428)는 『요한복음 주해』에서 그리스도를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원칙’으로써 기능하는 ‘문’으로 설명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양들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진리에 다가가려는 모든 이에게 당신이 가장 주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sup>39</sup>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다른 길을 허락하신 일이 없기에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찾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sup>40</sup>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9장 1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문’을 구원과 관련하여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가는 문’에 비유한다. 그 ‘문’은 과거의 형태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언약의 족장들을 인도하는 문’이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도들, ‘교회의 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sup>41</sup>

제사장들은 훌륭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성소를 맡은 대제사장은 더욱 훌륭합니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는(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회가 아버지께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sup>42</sup>(*Phil*, 9:1)

<sup>39</sup>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526.

<sup>40</sup> Peter J. Gentry ·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Wheaton: Crossway, 2018), 777-778.

<sup>41</sup> “That the Church participates in the economy of salvation, therefore, involves the Church in the covenantal relation of Lord and servant, as well as the eschatological sublimation of nature in the beginning by grace at the end.” R. Michael Allen, “The Church and the churches: A Dogmatic Essay on Ecclesial Invisibility,” in *EuroJTh* 16:2 (2007), 115.

<sup>42</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9:1, 110-111.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2장 1절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 구원론의 그릇된 교리를 따르지 말도록 한다. “여러분은 진리의 빛의 자녀이므로 분파와 거짓된 교리를 피하십시오, 목자가 있는 곳에 있는 양처럼 따르십시오.”<sup>43</sup> 그리고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6장 1절에서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내지 않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의 묘비에 그 이름을 새겨넣을 뿐”<sup>44</sup>이라고 증거한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문’으로 대표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절도’와 ‘강도’라 일컫고 있다.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2장 2절에서는 교회 내에서 유대교의 율법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단들을 가리켜 ‘가면을 쓴 이리들’로 표현한다.<sup>45</sup>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의 역할들을 감당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 150-215)에 의하면 ‘이리들’은 몰래 숨어서 “영혼을 미혹시키는 기회주의자들”이며, “속임수와 폭력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다.<sup>46</sup>

두 번째는 연합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문’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채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한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of Nazianzus, 329-390)는 『성자』의 (연설 30)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를 안으로 들여 보내주는 문”<sup>47</sup>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 ‘문’이 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값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가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9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εις ένότητα θεού)’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제 자리’를 찾게 된다.

43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 108.

44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6:1, 109.

45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2, 108.

46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527.

47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527.



이그나티우스가 증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의 수난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sup>48</sup>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값을 담아내었기에(공의의 만족)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끌어내는 문'이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신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떠난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라 분파를 일으키며,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 자리 없다"<sup>49</sup>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복음의 참된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문'에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면서 그 '문'의 진정한 가치관을 깨달아 이단들의 헛된 교리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III.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 1. "아버지 없이는(ἄνευ τοῦ πατρὸς)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중보자

위격적 연합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이다. 위격으로는 제이위되시는 성자 하나님이다. 권능과 권세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중보적이다. 중보적인 것은 종속적 측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고유한 위격에 따른 역할에 의한 구분이다.<sup>50</sup>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룬 '위격적 연합'의 모습에서 성자는 제이위의 위격이면서 중보자로서 모습을 취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서 짧은

48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9:2, 11.

49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2, 110.

50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306-308, 342; Karl Hermann Schlegel,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II*, 조규만·조규홍 역, 『신약성경신학 제2권』 (파주시: 가톨릭출판사, 2012), 325.

서술적 전개를 펼치면서 증보와 관련해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sup>51</sup>이라는 이 본문은 증보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첫 번째는 존재와 본질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증보자다. ‘아버지와 하나였다’는 것은 성자는 존재에 있어서는 삼위일체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리우스(Arius, 256-336)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때였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5-373)가 삼위일체에 대해 변증하고 니케아 신경(Nicene Creed, 325)이 그리스도에 대해 ‘동일본질’을 확립하기까지, 비록 통전적이지만 교부들의 흔들림 없는 교리적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up>52</sup>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서 글을 시작할 때 ‘오스페르(Ὠσπερ, 꼭 ~처럼, 일치, 하나)’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존재적 측면과 본질의 요소(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를 증보적 위치와 함께 강조하고 있다.<sup>53</sup>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Ὠσπερ οὖν ὁ κύριος ἄνευ τοῦ πατρὸς οὐδὲν ἐποίησεν.)”<sup>54</sup>이라는 본문 속에 증거되고 있는 “아버지와 하나” 그리고 “아버지 없이는”이라는 본문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증보자로서 본질적인 역할을 증거하고 있다. 존재로서는 신성이 강조되며, 역할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속이 증보와 함께 설명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재와 역할에 있어서 증보자의 모습이 부인(否認)되면

51 Ignatius, “To the Magnesians,” 7:1, 96.

52 Thomas G. Weinandy, *Athanasius: A Theological Introductio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 1, 40.

53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요 14:8)라고 간청한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요 14:10)라며 성자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 삼위일체 되심과 동일본질되심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을 통해 자신이 증보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증보적 위치가 아버지의 본질을 비취내는 것임을 말한다.

54 Ignatius, “To the Magnesians,” 7:1, 96; Ko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414.

대속은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 나타나는 본문의 증거를 통해 이그나티우스는 유대주의자들이 증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변증한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는 보내신 이의 뜻을 세우는 증보자다. 성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른 역할을 부인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교리를 반증하며 경고한다. 이때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ὄνε υ τοῦ πατρὸς οὐδὲν) 하지시 않은 것처럼”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자의 위치에 따른 증보적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다. 요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의 증보적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때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킨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 성부의 뜻을 세우는 증보자로서 역할이 강조된다.<sup>55</sup>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증보적인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요 5:30) 역시 보내신 이의 뜻을 세우는 증보자를 다루고 있다.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서 부각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시 않은 것(ὄνε υ τοῦ πατρὸς οὐδὲν ἐποίησεν,)”은 당사자의 능력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관점은 그리스도의 증보적 사역의 모습이다. 복음서에 능통했던 이그나티우스는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의 내용을 빌려 그리스도의 증보적 사역에 따른 역할을 강조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라는 증보사역이 강조된다. 여기서 ‘증보적인 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성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따른 증보적 사역은 창조에 따른 증보적 사역과는 달리 비하(卑下)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증보자다. 키릴루스는 요한복음 5장 19절을 주석하는

55 Schreiner, *The King in His Beauty*, 509.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며, 모든 일에서 성부와 한 뜻을 가졌다고 말한다.<sup>56</sup> 이런 면에 비취 볼 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19)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본성과 어긋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sup>57</sup>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한다. 반면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님이면서 동시에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주석한다.<sup>58</sup>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른 순종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른 것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역을 거론한다. 순종은 동등의 위치에서 논해지는 것이 아니다. 명령과 이행에 따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속의 값은 순종이 수반(隨伴)되어야만 한다. 이때 순종은 마치 종과 같은 모습을 가진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말한 것에는 순종이 강조되면서 종과 같은 자로서 순종의 모습이 부각된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μία, εἷς, ἓνα)’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sup>59</sup>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취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취한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데 순종하도록 권면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불신앙의 요소가 된다.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과 2절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버지

56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318.

57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318.

58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317-318.

59 “1. Ὡσπερ οὖν ὁ κύριος ἄνευ τοῦ πατρὸς οὐδὲν ἐποίησεν, ἠνωμένος ἐν, οὕτε δι’ ἑαυτοῦ οὐτε διὰ τῶν ἀποστόλων, οὕτως μηδὲ ὑμεῖς ἄνευ τοῦ ἐπισκόπου καὶ τῶν πρεσβυτέρων μηδὲν πράσσετε, μηδὲ πειράσητε εὐλογόν τι φαίνεσθαι ἰδία ὑμῖν, ἀλλ’ ἐπὶ τὸ αὐτὸ μία προσευχή, μία δέησις, εἷς νοῦς, μία ἐλπίς, ἐν ἀγαπῇ, ἐν τῇ καρᾷ τῇ ἀμώμῳ, ὃ ἐστὶν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οὗ ἄμεινον οὐθὲν ἐστίν.

2. πάντες ὡς εἰς ἓνα ναὸν συντρέχετε θεοῦ, ὡς ἐπὶ ἓν θουσιαστήριον, ἐπὶ ἓνα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 τὸν ἀφ’ ἐνὸς πατρὸς προελθόντα καὶ εἰς ἓνα ὄντα καὶ χωρήσαντα.” Ignatius, “ΜΑΓΝΗΣΙΕΥΣΙΝ ΙΓΝΑΤΙΟΣ,” in *Ἐπτά Ἐπιστολαί Ἰγνατίου*, 7:1-2, 54.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에는 명령에 따른 순종이 거론된다. 이때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 없이는’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행할 직무적인 것과 연결된다.<sup>60</sup> 그리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은 그 직무에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과 함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아버지’가 존재론적 측면에서 아들됨과 연결된다. 그리고 직무에 따라 순종하는 메시아와 관련된 아들에게로 본문은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일으키는 분열을 이겨내며 분열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감독과 장로들이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각자 행하는 것이 칭찬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확신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만이 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과 온전한 기쁨이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의 기도, 하나의 간구, 하나의 생각, 하나의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의 제단으로 나아오듯 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고, 여전히 그분과 함께 한 분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sup>61</sup>(*Mag*, 7:1-2)

요한복음과 연결된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은 완전히 순종하는 종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 두 가지를 돌아보게 한다. (1) 본질을 벗어난 유대주의자들의 자기주장을 따르지 말 것이 강조된다. 구원에 따른 교리는 철학과 사상의 접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이룬 본질을 벗어나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sup>62</sup> 이그나티우스는 이점을 ‘하나(*μία*,

60 Vos, *The Self-Disclosure of Jesus: The Modern Debate about the Messianic Consciousness*, 169.

61 Ignatius, “To the Magnesians,” 7:1-2, 96.

62 James Bethune-Baker,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Cambridge: Fellow and Dean of Pembroke College, 1903), 121.

εἴς, ἔνα)의 강조를 통해 밝히고 있다. (2)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종과 같은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구원에 따른 교리적 근본은 사람의 지식에서 나올 수 없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것이어야만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유대교의 “잘못된 의견이나 가치 없는 오래된 이야기들에 미혹 당하지 말도록”<sup>63</sup> 한다. 유대교가 가르치는 전설들과 비유적 해석에 동요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이룬 교리로 율타리를 치도록 한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 2. ‘양들’이 안심하고 따르는 ‘목자’ 되시는 증보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돌봐줄 목자가 필요하다. 이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요 10:3)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요 10:4) 여기서 4절의 ‘그의 음성’은 5절의 ‘타인의 음성’과 대조된다. 요한복음은 이런 대조를 통해 목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음성을 아는 고로”에서 거론되고 있듯이 목자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도록 양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각인시켜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아리우스파와 아리우스 반박』(연설 33) 16에서 “양들은 자기들 목자의 소리와 낯선 자의 목소리를 분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sup>64</sup>라고 말한다. “분간하는 습관”은 단순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각인을 전제(前提)로 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2장 1절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단들의 분파와 그릇된 교리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도록 한다. 요한복음에서도 강조되듯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63 Ignatius, “To the Magnesians,” 8:1, 96.

64 Elowsk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522.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 목자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음성을 양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때 목자가 각인시키는 사역이 중보적 사역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3장 1절에서 나타낸다. 제2장 1절의 본문에 기록된 목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3장 1절과 연결되는 본문 속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목자의 역할이 중보적이란 것 또한 밝혀진다. ‘나쁜 목초지’는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셨기에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경작하지 않으신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은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sup>65</sup>과 연결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비추고 있다.

여러분은 진리의 빛의 자녀들이므로 분파와 그릇된 교리를 피해야 합니다. 목자 있는 곳에서 양처럼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사악한 쾌락의 수단으로 하나님님의 경주를 하는 자들을 사로잡는 가면을 쓴 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연합 앞에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Phil*, 2:1-2)<sup>66</sup>  
나쁜 목초지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그것을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경작하지 않으십니다. ...(*Phil*, 3:1)<sup>67</sup>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의 중보적 역할이 구원과 관련하여 ‘절도’와 ‘강도’ (참고, 요 10:1)에 대비(對比)되는 ‘문’에 비유된다. 그리고 목자로서 중보적 기능이 ‘삿꾼’과 대비(對比)되는 ‘선한 목자’(참고, 요 10:11~15)로 나타난다. ‘이리(λύκος, wolf)’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는 ‘삿꾼’이 아니라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로서 중보적 기능을 가진다.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2장 1절과 2절, 그리고 제3장 1절에서 이단들을 가리켜 ‘분파주의자’,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 ‘가면을 쓴 이리들’, ‘나쁜 목초지’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는 중보적 목자로 증거된다. “아버지께서

65 Ignatius, “To the Magnesians,” 7:1, 96.

66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2, 108.

67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2, 108.

그것을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경작하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 양처럼 따르라”라는 권면 속에는 이그나티우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꿀’을 제공하는 목자되시는 증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특히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3장 1절에는 ‘나쁜 목초지’가 등장한다. 그리스도는 이와 반대되는 ‘좋은 목초지’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증거된다. ‘좋은 목초지’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처럼 ‘꿀’을 제공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따른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양처럼 따르라”<sup>68</sup>고 권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는 목자되시는 증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양은 이리를 이길 방법이 없다. 누군가의 보호가 없이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무서운 것은 ‘가면을 쓴 이리’는 속이기까지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유대교적인 그릇된 교리를 앞세운 자들을 가리켜 ‘가면을 쓴 이리들’로 비유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의 교리는 양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것을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요한복음 10장을 비취내면서 밝히고 있다.<sup>69</sup>

### 3. 연합하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증보자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연합이다.<sup>70</sup> 특히 이단의 문제로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를 향해 이 세 가지는 더욱 강조된다. 열 마리 표범같은 로마 호위병에 묶여 드로아에 도착한 이그나티

68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 108.

69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3:1, 108.

70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35-37.



우스가 세 편(「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서머나 인들에게」, 「폴리갑에게」)을 기록한다.<sup>71</sup>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스(Neapolis)로 가기 전,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심정을 밝히면서 이렇게 인사한다.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은 자인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문안합니다.”<sup>72</sup>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한 값이었다. 대속이다. 그리고 이 피의 값은 중보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은 자(θεοφόρος)’는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된 것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을 이루는 값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을 이끌어내고 있다.<sup>73</sup>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7장 1절과 2절에서 성령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하게 된다.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로부터 발출’됨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성령은 ‘현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령은 숨겨진 것도 드러내시기 때문에 현혹당하거나 속임 당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sup>74</sup>라며, 인사말에서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은 자’라는 자신의 소개와 관련하여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의하면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사람의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 본문과 연결하여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7장 1절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심이며,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실 뿐 아니라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기까지 한다는 것을 증거한다.<sup>75</sup>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보혜사(돕는자, 중재자, παράκλητος)’인 성령(바람, 호흡, πνεῦμα)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할 모든

71 Bettenson,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3-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660-664

72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Text, 107.

73 조윤희,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22-224.

74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1, 109-110.

75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1, 109-110.

것을 생각나게” 한다.<sup>76</sup> 성령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sup>77</sup> 이런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다. 요한복음은 ‘보혜사’에 대해 14장(2번), 15장(1번), 16장(1번)에서 총 네 번 강조한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강조하기보다 ‘역할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강조된다.<sup>78</sup>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7장 1절에서 이와 관련하여 성령은 ‘하나님계로부터 오심’이며, 성령은 현혹되지 않는다는 ‘존재’와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는 ‘역할적 측면’에서 ‘보혜사’를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소중히 여기도록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흑암에 이르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분파로부터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그릇 인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감독과 장로회, 그리고 집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중 몇몇이 분파 주의자라는 것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어떤 분들이 의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해 내가 죄수인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통로를 통해 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계속 전파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감독을 떠나 개별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지키며 연합을 귀히 여기고 분파를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를 본받으셨던 것처럼 그분을 본받으십시오.”<sup>79</sup>(*Phil*, 7:1-2)

76 Ko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438-439.

77 Beale,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571.

78 Ko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439, 445.

79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1-2, 109-110.

이그나티우스는 요한복음 3장과 14장을 연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을 이끌어내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본 서신의 제8장 1절은 증거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sup>80</sup> ‘온전히’라는 것은 단순한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함께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로 인도해내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증보적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효력은 보혜사를 통해 지금도 동일하게 발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마음의 원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며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8장 2절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을 밝혔던 것이다.<sup>81</sup>

#### IV. 요한복음과 관련하여 성경 신학적 접근에서 발견된 설교의 세 가지 적용점

##### 1. 성경 속에서 중심주제를 찾는 설교: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론을 중심에 두는 설교

교부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은 성경에 매우 능통했다는 점이다. 성경은 신앙과 신학에 대한 출발의 원점이다. 그러니 모든 신앙과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도 나타나듯이 그는 성경에 매우 능통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중심과 사상 또한 성경을 중심에 두고

80 “1. Ἐγὼ μὲν οὖν τὸ ἴδιον ἐποίουν, ὡς ἄνθρωπος εἰς ἔνωσιν κατηγορισμένος. οὗ δὲ μερισμός ἐστιν καὶ ὀργή, θεὸς οὐ κατοικεῖ.” Ignatius, “ΦΙΛΑΔΕΛΦΕΥΣ IN IGNATIOΣ,” in *Ἐπτὰ Ἐπιστολαὶ Ἰγνατίου*, 8:1, 104.

81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8:2, 110.

있다는 것을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된다. 로마의 형장(刑場)으로 끌려갈 때였다. 이때 자신을 담대히 붙들어줬던 것이 성경이었다는 것을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5장 1절과 2절에서 밝힌다. 여기서 그는 ‘복음서’와 ‘사도서’ 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밝힌다. 예언자들의 설교 안에는 복음을 기대하고 대망함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위안을 얻듯이 ‘복음서’와 교회의 장로회에서 위안을 얻듯이 ‘사도서’에서 위안을 얻으며 제가 자비롭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들’도 역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그들의 설교 안에서 복음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대망하였으며,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들(Saints)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증을 주셨으며, 그들이 우리의 공통된 희망의 복음에 대한 실질적인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sup>82</sup>(*Phil*, 5:1-2)

그는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여기에 대한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전해준 ‘그리스도론’이 있었기 때문이다.<sup>83</sup> 복음서와 사도서 그리고 예언자들의 설교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스도론’이 중심주제가 되어 자신을 갈등적 구조로부터 건져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 고난과 갈등의 시대 앞에 놓여 있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인내하며 결실을 맺어 가라고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설교하듯 권면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서신을 8월 24일에 씁니다.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sup>82</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5:1-2, 109.

<sup>83</sup> Philip Schaff, ed. “Ante-Nicene and Nicene Rules of Faith and Baptismal Creeds,”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II: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New York: Harper Brothers, 1919), 11.

끝까지 견디십시오.”

성경 중심적 설교를 할 때도 중심주제를 살리는 설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5장 1절과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5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요한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론’으로 일관(一貫)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성자되심과 영생에 대한 초점을 기독교론으로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대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한 위격적 연합의 성육신에 따른 신비적 연합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만 말할 수 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의미(‘영접하다 *λαμβάνω*’로도 묘사된다)를 다양한 동사(‘믿는다’라는 *πιστεύω* 동사를 92회 사용하고 있다)와 이미지를 사용하여<sup>84</sup> 중심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설교는 기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론’의 중심주제를 통해 풀어어나가고 있었다.

속사도 교부들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디다케를 비중 있게 다뤘다.<sup>85</sup> 당시 안디옥은 다른 지방의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다.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요한복음을 인용하여 구속과 관련한 그리스도 중심적 주제를 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그의 가르침과 설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디다케적 요소의 유형 속에 있었다.<sup>86</sup>

사도들의 신앙을 교회 전통으로 삼았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교회의 전통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지켜내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 교회는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 설교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활력소가 아니다.

<sup>84</sup> Schreiner, *The King in His Beauty*, 527-528.

<sup>85</sup> Cyril. C. Richardson, ed. "The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 Commonly Called the Didache," i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introduction, 163-164.

<sup>86</sup> 조윤희,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39-41.

설교는 신앙을 지켜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 속에서 설교의 중심주제 찾는 설교, 그 가운데 특히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론 중심의 설교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 2. 키워드(keyword) 설교: 구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설교

설교는 청중들에게 언어의 전달을 통해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때 설교가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키워드가 사용된다. 키워드 방식의 설교는 특정한 단어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청중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하나로 묶어가는 특징을 가진다. 키워드를 사용한 설교 방식은 어떤 특별한 환경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질 때 그리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그나티우스는 요한복음과 관련해 두 가지 부분에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구원과 관련해 「에베소 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떡(요한복음 6장)’과 ‘생수(요한복음 4, 7장)’가,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문(요한복음 10장)’이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중보자와 관련해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아버지 없이는(요한복음 5장)’이라는 문장이,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목자(요한복음 10장)’와 ‘성령(요한복음 3, 14장)’ 등이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키워드는 사람의 이성과 지성에 인격적으로 관여하고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신앙과 결부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인격이 영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를 사용한 포인트 방식의 설교가 주는 장점 가운데 하나는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목회적이면서, 설교적이다. 그는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키워드를 사용한 포인트 방식을 통해 영적 전선을 긴밀하게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 본문과 동떨어진 키워드가 아니라 본문과 영적 호흡을 함께하는 키워드를 선정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는 ‘복’이 ‘천국’과 관련된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사도행전 3장과 5장에 나타나는 베드로 설교의 키워드는 구원과 관련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였다. 사도행전 13장의 바울 설교는 구원과 관련된 ‘죄 사함’이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요한복음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용을 통해 갈등의 요소를 이겨나갈 신앙을 제시하였던 이그나티우스는 키워드 방식을 통해 함께 영적으로 호흡하는 특징적 요소를 담아낸다. 그는 키워드를 사용할 때도 무분별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성경을 떠나지 않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구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설교는 성경을 떠나지 않는 키워드가 더욱 가치를 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키워드를 사용한 이그나티우스의 포인트 방식의 설교는 듣는 청중들을 주목하게 만들며,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 중심에 청중들을 세우는 유익을 주게 된다.

### 3. 교리를 앞세운 언약적 설교: 구원에 관한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십자가 설교

제목이 중심을 이루는 설교, 주제가 중심이 되는 설교, 교리가 중심을 이루는 설교 등, 설교의 형태는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특징에 따라 다양하다. 교부들이 있던 당시, 이단들이 교회를 반대하던 주요 도구가 교리였다.<sup>87</sup> 이때 교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등장하게 된다.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2장 1절에서 여기에 대해 직접 화법으로 증거한다. “여러분은 진리의 빛의 자녀이므로 분파와 거짓된 교리에서 피하십시오.” 지금도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할 때, 자신들의 교리를 중심에 세워 미혹한다. 사도 이후 교부시대, 교회가 교리적으로 공격당하면서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세워진 교리문답 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sup>88</sup> 이때 진리를 수호하는 교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른 언약이 중심에 세워진다.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을 인용한 이그나티우스 서신의 일부뿐만이 아니라 서신의

<sup>87</sup>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3:3, 108.

<sup>88</sup> August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최석우 역, 『세계 교회사』 (왜관: 분도출판사, 2013), 52-55.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교리의 근거와 정당성을 제자들의 ‘어록들’에서 찾았다. 여기에 대해 교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의 전통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교리의 중심을 만들어가게 된다.<sup>89</sup> 교리는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는 핵심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요한복음을 인용하며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교리의 초석을 세운다.

요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떡’을 비유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설명된다. 그리고 이 떡에서 증거되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 안에는 “예수의 승리는 생명이 죽음을 정복했다”<sup>90</sup>는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진다. 이그나티우스는 이 본문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성전 안에 있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떡(빵)이 결핍될 것”<sup>91</sup>을 거론하면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의 터를 놓게 된다.<sup>92</sup>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교리적 제사를 요한복음 10장 9절과 11절 이하의 ‘목자’를 인용하면서 “목자가 있는 곳에 양처럼 따르라”<sup>93</sup>며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2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 구속의 완성을 이룬 분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죄악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승리의 형틀’이다. 그리스도가 받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죽음은 메시아로서 승리를 나타내는 예언의 성취였다.<sup>94</sup>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의 서신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요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십자가는 미려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89 William W. Klein, Craig L. Blomberg, Robert L. Hubbard Jr,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Word Publishing, 1993), 33.

90 Schreiner, *The King in His Beauty*, 505.

91 Ignatius, “To the Ephesians,” 5:2, 89.

92 조윤호, “위기로 인한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 연구,” 『한국개혁신학』 73 (2022), 118-119.

93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 108.

94 Gladd, *From Adam and Israel to the Church: A Biblical Theology of the People of God*, 144-145.



‘승리’를 이끌어내는 진리였다. 그는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기가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었다.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를 통해 증거해내는 설교는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로 청중들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승리의 길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 V. 나가면서: 성경 신학적 접근의 효과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접하는 내용이 교리 또는 신앙과 결부될 경우 문제의 접근을 복음서와 사도서를 비롯한 예언서 등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펼쳐나갔다. 여기에는 고린도전서를 비롯하여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사야 등의 내용들이 주로 인용되어 사용되었다. 특히 이런 본문들은 주로 은유적 방식에 의해 소개되고, 활용되었던 것을 서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95</sup> 그런가 하면 속사도 교부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당시의 신학은 교리와 신앙을 분리하여 보지 않고, 통전적 방식으로 내용들을 전개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신학적 흐름 또는 시대적 유행을 따르는 장르가 아니었다. 이단과 핍박이라는 양날의 구조적 갈등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한 방편이었기에 이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다. 당시 교리적인 지도와 신앙의 지도는 별개 사안이 아니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 내용들이 묶여져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니 변증 또는 가르침이 통전적일 수밖에 없었다.

통전적이면서, 은유적 방식으로 접근을 이루었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신학적 접근에 따른 방식이 함께 가미될 필요가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당시 이단들과의 접점을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론에 따른 문제를 요한복음의 직·간접적 인용을 통해 접근하고,

95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30-41.

답을 주고 있었다. 이것을 성경신학적 접근을 통해 바라보면 이그나티우스는 요한복음의 본문 인용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2) 구원에 따른 '영생'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전체 특징이기도 했다. 그는 요한복음의 이런 특징을 살려 '구원과 그리스도' 그리고 '증보자되시는 그리스도'를 조명하면서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에 따른 허구성을 드러내었으며, 신앙의 바른 길을 통전적으로 제시했다. 성경신학적 접근은 이그나티우스가 요한복음의 인용을 통해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 전통으로 삼았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구원에 따른 유일한 길에 대한 제시를 요한복음을 빌려 '하나님의 떡'과 '생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문'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스도론이 중심에 서면서 구원과 영생이 함께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룬 사역적 측면을 증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각시켜 강조한다. 여기에서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증보자'가 요한복음 5장, 14장과 관련하여 제시된다. 그리고 '양들이 안심하고 따르는 목자되시는 증보자'는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빌려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연합하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증보자'는 요한복음 3장, 14장과 연계하여 교리와 신앙이 함께 제시된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내용을 전달할 때, 설교적인 방식이 간접적으로 취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발견된다.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있는 이그나티우스 서신의 본문에 대한 성경신학적 연구와 분석은 세 가지 점을 진리 위에 세우게 하는 유익을 준다. (1)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따른 '한 인격'과 성육신에 따른 대속의 값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한다. (2)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구원에 따른 확신을 바라보게 한다. (3) 그리스도가 증보적 사역으로 이룬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교리관을 세우게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요한복음을 인용할 때 위의 세 가지 주제를 살리기 위해 효과적 전달법을 사용한다. 이때 청중들을 향해 설교하듯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전달 양식은 현대 설교

자들에게 설교를 위한 세 가지의 효과적 유형을 전해주고 있다.

(1) '성경 속에서 중심주제를 찾는 설교'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용할 때 중심주제를 반드시 든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전개 또한 관련된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주제를 잡을 때 자신이 원하는 단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이런 맥락은 사도의 전통성을 길러내고, 교회의 전통성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

(2) '키워드 설교'다. 구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이그나티우스가 사용한 방식이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중심주제의 설교와 가미하여 단어를 선정한다. 특히 그가 사용했던 '하나님의 떡'과 '생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문'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구원과 영생에 관해 매우 효과적인 접근을 이루어 갔다.

(3) '교리를 앞세운 언약적 설교'다.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십자가와 승리를 담은 설교를 교리를 앞세워 언약적으로 설교한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신 것의 성취를 이룬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십자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터를 이루고 있었다. 로마의 형장으로 이끌려가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이 되는 것"<sup>96</sup>이라고 「로마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겨운 걸음을 걸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인용을 통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교리를 앞세워 언약에 따른 영생의 확신을 말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를 넘어 독자로 하여금 언약 안에 함께하는 동력을 발하게 된다.

이그나티우스가 효과적 전달을 위해 그리스도론을 중심주제로 삼았던 것과 구원에 따른 효과적 전달을 위해 사용한 키워드 방식은 지금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교리를 바탕으로

96 Ignatius, "To the Romans," 2:2, 103.

한 언약적인 제시 또한 신앙을 바르게 견인해내는 훌륭한 설교의 도구가 된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려 전개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성경 신학적 접근을 통해 발견된 이와 같은 도구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전개되는 수준을 넘어 신앙과 사역에 충분히 적용되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성경 신학적 접근에 따른 연구는 매우 유의함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Allen, R. Michael. "The Church and the churches: A Dogmatic Essay on Ecclesial Invisibility." in EuroJTh 16:2 (2007),113-119.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 Beale, Gregory K. *(A)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김귀탁 역. 『신약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Berkhof, Louis.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1991.
- Berardino, Angelo Di ed. *Encyclopedia of Ancient Christianity*. Illinois: IVP Academic, 2014.
- Bethune-Baker, James.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Cambridge: Fellow and Dean of Pembroke College, 1903.
- Bettenson, Henry.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Colle, Ralph Del. *Christ and the Spirit: Spirit-Christology in Trinitarian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Deenick, Karl. *Righteous by Promise: A Biblical Theology of Circumcision*. 김귀탁 역. 『할레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 Drobner, H. 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Elowsky, Joel C.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ohn 1-10. 정영한 역. 『교부들의 성경 주해 (신약성경 05: 요한 복음서 1-10장)』. 왜관: 분도출판사, 2014.
- Frame, John M.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김진운 역. 『성경론』.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 Frank, Karl Suso.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Franzen, August. *Kleine Kirchengeschichte*. 최석우 역. 『세계 교회사』. 왜관: 분도출판사, 2013.
- Gentry Peter J. · Wellum, Stephen J.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Wheaton: Crossway, 2018.
- Gladd, Benjamin L. *From Adam and Israel to the Church: A Biblical Theology of the People of God*. 전광규 역. 『하나님 백성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1.
- Hamman, Adalbert.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 Hartog, Paul A. “Imitatio Christi and Imitatio Dei: High Christology and Ignatius of antioch’s Ethics.” *Perichoresis* 17.1(2019).
- Ignatius. “To the Eph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Magn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Trall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Rom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Philadelph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Smyrnae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Polycarp.”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ΠΡΟΣ ΕΦΕΣΙΟΥΣ ΙΓΝΑΤΙΟΣ*,” in *Επτὰ Επιστολαί Τυνάρτιοῦ*. 박미경 역. 『이냐시오스 일곱 편지』.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 Klein, William W. Blomberg, Craig L. Hubbard Jr, Robert L.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allas: Word Publishing, 1993.
- Kobusch, Theo.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
- Kostenberger, Andreas J.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전광규 역. 『요한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Lubac, Henri de.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박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 화성시: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 Morales, L. Michael. *Exodus Old and New: A Biblical Theology of Redemption*. 윤석인 역. 『출애굽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1.
- Orr, James.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V*. Chicago: The Howard-Severance, 1915.
-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 Pelikan, Jaroslav.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 Richardson, Cyril. C. ed. "The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 Commonly Called the Didache." i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9.
- \_\_\_\_\_. ed. "Ante-Nicene and Nicene Rules of Faith and Baptismal Creeds."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II: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New York: Harper Brothers, 1919.
- \_\_\_\_\_.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 Schlekle, Karl Her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II*. 조규만 · 조규홍 역. 『신약성경신학 제2권』. 파주시: 가톨릭출판사, 2012.

- Schreiner, Thomas R. *The King in His Beauty*. 강대훈 역.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Vos, Geerhardus Johannes. *The Self-Disclosure of Jesus: The Modern Debate about the Messianic Consciousnes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4.
- \_\_\_\_\_. *Biblical Theology*. 이승구 역. 『성경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Weinandy, Thomas G. *Athanasius: A Theological Introductio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8.
- Williamson, Paul R. *Death and the Afterlife: Biblical Perspectives on Ultimate Questions*. 김귀탁 역. 『죽음과 내세 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 조윤희.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18-268.
- \_\_\_\_\_.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24-173.
- \_\_\_\_\_. “위기로 인한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 연구.” 『한국개혁신학』 73 (2022), 103-142.
- \_\_\_\_\_.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과 이해: 교회를 향한 그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4 (2022), 25-67.



**[Abstract]****Biblical Theological Study and Application of the Gospel  
of John in the Epistles of Ignatius  
: Focusing on Christology related to salvation**

Youn Ho Jo

(Gerizim Church, Senior Pastor, Systematic Theology)

It was from the end of the 1st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nd century. The church was facing conflict and crisis due to the two forces. One was the power of heresy that plunged the church into spiritual conflict. Another was Rome, which persecuted the church. Ignatius guides the church not to be shaken from conflicts and crises through his letters. The instrument he used at this time was the Bible. He suggests a way out of conflict and crisis by quoting the letters of the 'Apostles', the 'Gospels', and the 'Prophets'. His epistles, which are of faith, theology, and pastoral character, are characterized by emphasizing the teachings of Paul and Peter.

His correspondence was not speculative, but more like an apologetics centered on the Bible. The biblical theological approach to Ignatius' epistles allows u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is epistles more deeply. He was the Father who used the Bible very effectively for the message he was trying to convey. In particular, the Gospel of John is mainly used focusing on two things. (1) It is an apologetic of the divinity and humanity of Christ. (2) To refute the false doctrines of heresies. A biblical theological study of Ignatius' epistles gives us a way to get to know him more clearly. You will see his faith and discover his image

as a keeper of the truth. In addition, a study according to the biblical theological approach has the benefit of applying his pastoral aspect to us.

**Key Words:** Christ, Ignatius, Gospel of John, Biblical Theology, Conflict, Salvation